

예수님의 탄생

-두 번째 이야기-



10Page

나 레 이 셴 옛날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. 마리아는 마음씨 착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.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헤롯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,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.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.

사 람 들 언젠가 한 아이가 태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.
그분은 우릴 구원하러 오실거야!



11Pa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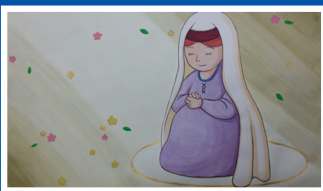
나 레 이 셴 어느 날 밤, 마리아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.

가 브 리 엘 마리아야, 두려워하지 마라.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.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,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그 아기에게 주실 것이다.

마 리 아 저는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?

가 브 리 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것 이니라!
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 을 것이다..

나 레 이 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매우 놀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.



12Page

마 리 아 하나님,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십시오.

나 레 이 셴 그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었어요. 또 결혼 하기로 한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 일이었어요. 그런데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.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가졌어요.



13Page

요 셉 아.. 정말.. 이건 말도 안돼.. 어떻게 마리아가... 나랑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아이를 가질 수 있지? 너무 괴로워.. 흐흑...

나 레 이 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. 하지만 마리아

나 레 이 션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, 마리아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.

천 사 다윗의 자손 요셉아!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.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.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게 구원하실 분이시다.

요 셉 으아! 네.. 알겠습니다.



14Page

나 레 이 션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약속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. 몇 달 뒤,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.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으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. 날이 저물었지만, 요셉과 마리아는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. 그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.



15Page

요 셉 빈방 없나요?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지도 몰라요. 제발.. 작은 방이라도 좋아요..

나 레 이 션 설만한 곳을 찾지 못했던 두 사람은 간신히 말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. 그 밤에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.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답니다.